

내가 먼저 변해야 · 나라를 위한 기도 응답



이때론 안된다. 국가의 기본을 허무는 온갖 불법과 탈선, 비양심적인 삶을 바빠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인 기독교여성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기도하며 세계선교와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평화통일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여성본부(상임본부장 장은화장로)는 4월 30일(목)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여성 연합 금식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대하 7:14)를 주제로 한국에스터구국기도회·한국아가해기독교여성협의회와 함께 공동개최한 이 날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은 기독교와 미신을 혼동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는 스스로가 국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뤄진다"며 "기독교인 스스로가 국가의 기본을 허무는 불법적인 병역면탈이나 탈세 혹은 부동산투기 등의 비양심적인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도 헛된 공기의 울림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엄신형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금식구국기도회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가 바뀌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

기독교여성지도자, 한국기독교여성 연합 금식구국기도회로 모여

변화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박홍자 장로(한기총 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조갑제 선생(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특강 후 참석자들은 '정치지도자들을 위하여'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여성 정체성 회복과 사명을 위하여' '차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등을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했으며, 정영숙 권사(한국에스터구국기도회 회장)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의문우리 모두는 한국교회의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여성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며 신앙의 어머니로서 모성애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에 신앙적 결단의 뜻을 모아 오늘의 국가적 민족적 혼란과 수난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오늘 모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및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독교 여성으로서의 책무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건국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국가 위헌세력을 적극 반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여 한국과 세계에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정신 함양을 위하여 충, 효, 효, 이념 확산에 솔선수범한다. 하나님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 동포의 인권회복을 위한 북한 구원 기도운동 확산과 아울러 한미동맹을 포함한 우방국가와의 평화적 문화교류에 헌신의 힘을 다한다. 하나님은 교단을 초월한 기독교여성 연합단체로서 국민화합과 일치체를 도모하여 하나님 사랑·나라사랑·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에 적극 협력한다.

2009년 4월 30일 한기총창립20주년기념사업여성본부
한국에스터구국기도회 한국아가해기독교여성협의회

효(孝)하면 화(和)하고 화(和)하면 성(成)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명심보감 치가편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화만사성을 이루는 원리 부분을 빼고 주로 뒷 문장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효창친락 가화만사성(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이 원래의 문장이다. 뜻을 풀이하자면 "자식이 효도하면 두 아버지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이다.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생 수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효'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다. 이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행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젊은이와 어른들 간에 세대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세대차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외운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잘 전수시키며 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도덕성이 결핍되고 불륜이 극심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외운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잘 전수시키며 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도덕성이 결핍되고 불륜이 극심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외운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잘 전수시키며 살고 있다.

인간은 교육적 존재이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인간다워질 수 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의 모습은 자녀에게 교육되고, 마지않아 내 자식들을 통해 나는 공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먼저 보이는 부모에 대한 '효'의 모습을 보이라!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삶을 보일 때, 내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이는 교육,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인간으로써 지켜야 하는 가장 근본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 가정이 화목하고 국가가 건강해 지는 것이다. 작은 샘물이 강을 이루고 대해(大海)가 되듯이 '자효창친락'이 '가화만사성'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오늘의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직적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수평적 사랑, 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와 친화하라! 이것이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최선의 실천방법이다.

본지사장(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하나님 주신 사역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영기 목사

재미대법원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5월 8일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한영신대학교 한영철 박사 기념관 공연장에서 거행됐다.

신임 대표회장 고영기 목사(예장 상임월드교회)는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한다며 부족하지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며 열심히 섬기겠다"며 많은 기도와 지도편달을 구했다.

이날 예배는 이수희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엄바울 목사(실무회장)의 기도, 한유진 권사(행신교회 회장)가 성경봉독(골 1:1-3)하고 김자연 목사(교문)가 '정성위에 부는 바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공로패증장과 전임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협력해 주신 전 총재 목사님께 감사사를 전하면서, 특별히 한영철 총장님께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 영성, 지성, 감성의 대표회장님

을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밝혔다. 또 김 조 목사(실무총재)가 취임패를 증정하고 엄신형 목사(교문)가 격려사를 순박홍(실무총재) 조경수 목사(미주총재)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심원보 목사(공동총재)축도로 마쳤다.

(재)세계복음화협의회 지문위원과 실무위원

실무위원은 △대표총재 피종진 △미주총재 서삼정 △상임총재 나경일 △운영총재 한영훈 △실무총재 김 조 순박홍 오범열 △공동총재 박원호 심원보 △대표회장 고영기 △상임회장 이수희 △실무회장 엄바울 △사무총장 박대남 △여교역자회장 서옥임 △운영본부장 서정숙

고영기 목사는 △예장총회 교정선교위원회 정회원 △평양노회 부회장 △서북지역노회협의회서기 △예장 GMS 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 심의분과 위원장 △기독시민운동 중앙협의회 총무 △미포경찰서 교경협의회 경복북회장 △상임월드교회 위임목사

이경은 목사 한부협 여성대표회장 취임



한국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는 진주초대교회 담임 이경은 목사를 여성대표회장으로 추대, 본 협의회 초대 여성대표회장으로 취임감사예배를 지난 4월 18일 경남 진주시 망경동 진주초대교회에서 드렸다.

부총재 장영운 목사 사회로 1부예배가 시작되어 준비위원장 정기남 목사(본지 발행인, 준비 위원장)기도와 김대곤 목사(진행위원장)가 성경봉독을, 한부협 총재 피종진 목사는 창세기 13:14-18절을 인용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2부 취임식에서 총재 피종진 목사는 여성대표회장 취임패를 이경은 목사에게 전달하고, 한부협 초대여성대표회장 이경은 목사가 취임인사를 했다. 이 여성대표회장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한부협

잡고 세계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회생을 각오하고 될 것이라 고 했다.

또 이경은 여성대표회장은 한 사람의 회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에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고, 또한 가장 큰 용사와 같은 것이며, 우리는 사명을 다하여 일해야 할 것을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주문하고 다짐하면서 세계의 비전을 알고 이 일에 한국 부흥사협의회와 함께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될 것을 약속하고 충성을 다짐했다.

이어 최영철 전도사가 "은혜가 아니면"이란 찬양으로 축가를 하고,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한부협 총재 피종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부협 여성대표회장 임명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전문반 1기,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연합동문회 이사 역임,
- 연세대 동문 부흥신학 협의회 여교역자 회장 역임
- 21세기 세계여성부흥운동본부 여부총사 상임회장역임
-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 및 대학원
- 명예 기독교 교육학 박사(Ed.D.)
- 국제 우드스탁 스쿨(Woodstock School) 명예부호
- 국회정처인, 경제인, 목회자 선교연합회 총재(현)
- 아바드선교회 이사장(현)
-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경남지방회장(현)

수상경력

- 뉴스피플 2007 대한민국 혁신 경영인 대상 (종교계 부문수상)
- 헤럴드경제 2007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인물 (종교인 부문수상)
- 서울신문 VISION 2007 화제의 인물 선정
- 2008 장한 한국인 상 대상 수상 (뉴스웨이인문사 주최)
- 대한민국 선진 경영 대상 수상(경향신문 주최)
- 지랑스런 연세인 연세인원상(선교부문수상)
- 한국부흥사협의회 주최(목회부문 대상수상)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진주초대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며 자녀를 성공시키는 진주초대교회 담임 이경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2009 전국교역자부부수련회

주제 : 교회의 미래와 발전



총회장 장영기 목사



이강평 목사(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일
장
회
문
대
중
교
통
후

시: 2009년 6월 8일(월) 오후 4시~10일(수) 오전 9시까지
소: 목포 신안비치호텔(전남 목포시 죽교동 110-4)
비: 개인 4만원, 부부 7만원(숙식제공, 기념품제공, 대형주차장 완비)
의: 061)243-3399 / 010-2940-1617, 011-9602-3009
대중교통: 기차편-목포역 하차 / 버스편-목포 터미널 하차
원: 지저스타임즈(주간) WWW.JTNTV.KR 인터넷방송

각 노회 노회장 목사님은 협력위원장, 각 노회 서기, 회계목사님은 협력위원이십니다.

총
회
임
원



총 회 장: 장영기 목사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서 기: 신언창 목사 부 서 기: 최은수 목사 회 의 록 사: 이재갑 목사 회 의 록 부 서: 백승대 목사 회 계: 김대곤 목사 부 회 계: 정규남 목사 총 무: 김범수 목사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교육부장 심재호 목사



교육부서기 조광표 목사

웨신총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weshinch@korea.com

웨신 남부노회 제48회 정기노회 성료

오성택, 최종태, 모성온, 김용태, 목사임직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남부노회(노회장 조광표 목사)는 지난 4월 27일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40-4 소재 목포만나교회에서 제48회 정기노회가 개최되어 1부 예배와 2부 성찬식, 3부 목사 임직식, 4부 준목 인허식, 5부 남부노회 제 48회 정기노회를 가졌다.

이날 서기 김상호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노회장 김성남 목사 기도, 회계 박천위 목사 성경봉독, 노회장 조광표 목사가

가진행되어 서기 김상호 목사가 성경봉독을, 증경노회장 신연창 목사가 “선한 목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임직자 오성택 최종태 모성온 김용태 준목을 호령, 서약하고, 안수위원(김재완, 신연창, 조광표, 김성남, 김곡석, 김상호, 박천위, 공규봉) 목사 등이 이들을 목사로 안수하여, 노회장 조광표 목사가 공포했다.

또한 이날 목포주안교회 모성온 목사, 상리교회 홍석기 목사 등이 축사를, 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권면에 나섰으며, 강철중 집사가 축기를, 신임 최종태 목사가 광고를, 신임 오성택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계속해서 남부노회는 제 4부 준목 인허식을 가졌으며, 제 5부 노회장 조광표 목사 사회와 증경노회장 신연창 목사가 기도를 하고 회무처리에 들어가 모든 안건 토의를 화기에 한 가운데 이루어져 노회장 조광표 목사 축도로 폐회했다.

예총연 제4회 춘계수련회 마쳐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합회(이하~예총연)대표회장 유영성 목사는 지난 4.30~5.1일까지 “교회여! 희망을 선포하라”(여호수아 14:6-12)는 주제로 강원도 원주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2009년 예총연 제4회 춘계수련회를 가졌다.

첫 날 상임회장 이순주 목사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에 상임회장 김진형 목사가 기도를, 총무 홍종실 목사가 성경봉독을, 열린총회 중창단의 특송과 이사장 김경희 목사는 “꿈의

풍성한 열매”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유재관 목사의 헌금기도와 1. 자문 문인구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자문 양명석 목사가 북한 선교와 지구촌 선교를 위해서, 3. 자문 최용철 목사가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4. 감사 황병철 목사가 예총연과 소속교단 및 단체를 위해서, 각각 특별 기도예에 나섰다. 또한 상임회장 유순임 목사가 축사를,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가 광고와 인사를, 이사 김상봉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특강을 맡은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는 “철교 발전과 작성의 실제”란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대표회장 유영성 목사는 기독교 교회 제모습하기 150자 기도회를 갖고 “교회여! 희망을 선포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기독교 대내총무 이성원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하고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의 폐회광고와 찬송에 이어 이사 조성은 목사 축도로 예총연제4회 춘계수련회를 마쳤다.

예성 88회 총회, 신임총회장 한양수 목사

한 총회장 예성의 새로운 희망을 약속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는 지난 4월 27~29일 경기도 안양시 성결대 내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총회 대의원 455명이 참석, 제88회 교단 총회를 개최 신임 총회장에 한양수(66·창동진실교회) 목사를 추대했다.

“예성비전 세상의 소망”를 15:10~13이란 주제로 열린 첫날 총회에서 단독 후보인 한목사는 대의원의 만장일치 총회장에 당선되었다. 한 총회장은 “선교 100년을 넘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이때에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게 됐다”며 “청찬과 권면으로 우리 교단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임기 중에 교단행정 문제, 선교, 교육, 복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에 대해 목회

자 최저생계비 문제는 천사운동과 사랑의 저금통 운동은 가장 큰 해법이 될 수 있기에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백병도 전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선교 2세기를 향해가는 예성 교단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초대교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전 총회장은 “보수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끝까지 실천해간다는 결심에 찬 고백을 통해 세계에 선교의 역량을 펼쳐가자”고 강조했다.

총회 대의원은 이날 제88회 성총회를 위해,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 군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개회예배 후에는 총회 임원단, 지방회장 등을 대상으로 공로패가 전달되고, 예성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류우열 목사)는 1억5000만원의 개척지원금을 총회에 전달했다.

예성 총회는 첫날 지난해 87회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논의하지 못한 벽두안부터 처리했다. 원로들의 대의원권 자격규제 해방안 및 지방회의 대의원 선정 개정안은 또다시 1년 뒤로 미뤄졌다.

예성은 올해 개회 시간을 앞당겨 오후 2시에 시작했다. 현장개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임원 선거가 밤 늦게까지 이어져 개회 시간을 변경한 것이다. 또 총회 대의원의 재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무처리 중정회가 아닌 휴회를 선언해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휴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속하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신분증을 도입해 대의원들의 출석 체크나 선거 제반 업무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했다.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기성) 선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지난 5월 8일 20~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김운태 목사를 선출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 총무선출 선거가 열린 8일 김운태 목사는 실행위원 97명 중 찬성 53표 반대 44표로 앞으로 3년 임기 총무직을 수행하게 됐다. 총무



비대행위원장 자격 부적절 판결을 받은 허식 목사가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이어, 대표회장 후보자로 두 번이나 나선 예정합동 김동권 목사가 엄신형 대표회장의 감리고 행정총회(한국도 축) 방문을 질타하는 등 현재 한기총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는 발언들이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무직을 맡게 됐는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한기총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선출은 정관상 현 대표회장과 직전 대표회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 후보를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박수로 통과반자’는 의견과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확실한 선출을 위해 투표에 들어갈 것을 결의해 갑작스레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실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김운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무직을 맡게 됐는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한기총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임 김운태 총무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성결교에서 교단 총무를 지냈고, 앞으로 3년간 한기총의 실무를 맡아 나아갈 것이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 모임에서 이단사이

지난 4월 24일 임원회에서 위원장 교체 확정된 허식 목사는 재심청구를 요청하면서 “이대위원장 교체 청원을 한 5명이 포함된 교단 인사들이 조사위원들로 선정돼 불공정한 조사였다”며 “공정하게 할 줄 알았는데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했으니 재심청구를 받아줄 것을 주문했다. 허식 목사는 지난 임원회 회의록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보고 내용을 빼고 회의록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동권 목사는 “한기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발언한다”며 한기총 20주년 행사와 엄신형 목사의 감리고 방문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목사는 “한기총 20주년 행사가 부흥성회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들이 하는 일을 뒤엎아 가는 것이냐”면서 “또 얼마 전

감리고에 가서 한기총 가입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한기총의 위상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20주년 행사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며 해명한 뒤 감리고 건에 대해서도 “감리고 측에서 만장일치로 한기총 가입결의가 됐다고 해서 이에 고마워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캐리어 공항

대림 이마트

우리카도

오산 I.C.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IW영재교육

오후 1:00(토)

알파과정

오후 6(주일)

중·고등부

오후 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대담목사 : 김봉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인생상담 및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2009년 4, 5월 피종진 목사 국내·외 성회 일정

4월 집회

1(수)-2(목)

대만(Taiwan)나동지역 연합성회

3(금)-3(토)

대만(Taiwan)화려지역 연합성회

6(월) 오후

서울 미아교회(정태현 목사)총회신학교

6(월)-9(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9(목)-11(토)

서울 수정영성기도원(김기성 목사)

10(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 목회연구원

10(금) 오후

한국부흥사협의회

12(주) 오후

상주시 기독교 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강명원 목사)

13(월)-15(수)

시흥 소망교회(이정현 목사)

16(목) 오후

서울 소망기도원(원장 연인애 목사)

16(목)-17(금)

창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대학원(총장 고세진 박사)

23(목)-25(토)

부산 JUST 리버사빌센터

27(월) 오후

전주 감리수양관(원장 김목자 목사)

28(화) 오후

예장(합동)전국 목회자 세미나

28(화) 저녁

장소: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29(수)-5.1(금)

일본(JAPAN) 교토성서교회(유봉호 목사)

5월 집회

4(월) 오후

서울미아교회(정태현 목사)총회신학교

4(월)-7(목)

서울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7(목) 철야

제152차 해외성회(Int Overseas Assembly)

8(금)-10(주)

미국(U.S.A)알칸사(제자교회)(전남수 목사)

11(월)-13(수)

미국(U.S.A)유대반석장로교회(이교성 목사)

14(목)-17(주)

미국(U.S.A)오마하순복음교회(김수익 목사)

18(월)-20(수)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여교역자성회(대회회장 이재희 목사)

20(수) 오후

춘천예수전국교회(김기정 목사)

21(목) 오후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21(목)-23(토)

안양 생수교회(박정희 목사)

22(금) 오후

세계성령화부흥사연수원(원장 손학동 목사)

24(주)-27(수)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주회 성서화신교대성회

28(목) 오후

장소: 춘천 호반체육관

28(목) 오후

오산리치자살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태복 목사)

28(목) 오후

주최:조국통일통일협의회

28(목)-29(금)

춘천 새희망교회(하진홍 목사)

31(주일)

원주 큰사랑교회(권병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E-mail:holyspirit7777@gmail.com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 가정 예배 ■



권 세 능 목사
평택추천성교회담임,본지 상임이사

오늘의 예배 / 찬송304장
영6:1-4 부모공경

어느 종교든지 부모에게 효(孝)하라는 그 효를 가르치지 아니한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상 중에도 부모에게 효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사상은 없습니다. 모든 도덕 중에도 부모에게 효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한 도덕이 없습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유교(儒敎)의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綱領)과 5가지의 인륜(人倫)의 규범이 있습니다.

삼강(三綱)은 유교 도덕이 되는 세가지 뼈대가 되는 줄거리로서, 임금과 신하(군위신강 君爲臣綱), 남편과 아내(부위부강 夫爲婦綱), 부모와 아들(부위자강 父爲子綱)이 지켜야 할 몇몇한 도리를 말합니다. 오륜(五倫)은 유교 실천 도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다섯가지의 인륜, 즉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유유신(朋友有信)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라 말은 부모를 배우라 말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를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의 예배 / 찬송 259장
영20:20절 사랑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사는 형태를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 사명은 주님이 맡겨 주신 일이라면 모두가 사명입니다. 가정일도 직장일도 사명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은 복음전파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전도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 찬송204장
영6:1-4절 자녀의 신앙교육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었습니다. 이 말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그 가정이나 가족 중에서 일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서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신앙의 모델이 됨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과 삶은 자녀가 그대로 본받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 / 찬송220장
빈후3:8~14절 재림준비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인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 오실것을 수 백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천년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살아나심을 천히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만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의 318번이나 기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오신 그때로부터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세지말 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일어날 현상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노아의 때 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하는 현세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내세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예배 / 찬송 167장
마24:15~28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할것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짐수록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혼란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아집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 뽕뽕한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됩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진짜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표적은 ‘표사’, ‘증거’, ‘놀라운 일’이란 뜻으로 각종 이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영이’, ‘놀라운 일’이란 뜻으로 거의 표적과 같은 의미이지만 자연현상과 관련된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을 볼 때 야마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상당한 능력을 행사할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주님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의 예배 / 찬송 411장
창 18:20-21절 말의위력

부메랑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에도 부메랑 법칙이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뱀은 말이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뱀은 말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들리게 됩니다. 타인에게 한 말을 자신이 먼저 듣기 때문에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가 13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열 두명은 모두 그 땅이 험하고 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주민과 성을 보고 기름진 땅이지만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환경과 조건을 분석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정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평가합니다. 감사와 찬미의 말을 해야합니다.

칼럼

인간스스로는 약하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실은 아주 약합니다. 몇 번 인생에 실패하고 나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포기 합니다. 인생에서 완벽한 실패자는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타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한 인생들입니다. 올바른 삶을 포기한 막장인생들이 것입니다. 요즘 제법 인기를 끌고 있는 TV 드라마 중에 막장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막가는 인생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면 막장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무지 세상의 유혹이나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를 절제할 수 없

기 때문에 결국 막장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자는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도 이겨 냅니다. 가난도 이겨 냅니다 질병도 이

겨냅니다. 고통을 원수로 삼지 않고 친구로 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령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다스리는 능력이 믿음의 힘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돛을 달린 풍랑이 오하려 배를 더 빨리 가게 합니다. 가끔 외국 영화를 보면 큰 파도를 헤치면 파도타기를 즐기는 멋진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즐김의 대상입니다. 풍랑과 풍파를 오히려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본지 논설위원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 초대강단

열납하시도록 드릴찌니라(레1:1~3)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이 구약의 제사법이기에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번제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거룩한 신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롬12:1-2)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마23:33)

두 번째, 소제
소제는 곡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방법에 따라 기름과 소금과 향을 첨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레23:19) 이 처음 익은 소산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민18:12). 이 처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으며, 이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나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일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롬3:25 요일2:2, 4:10).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고후5:18)

그러므로 감사 예물, 서원 예물, 자원 예물도 물론 화목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화목제물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15:4 12:18 약3:5-8)

네 번째, 속죄제
여호와와 금궐 곧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계명(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 죄를 위하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여호와와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마다 속죄 회생을 드려 속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한번 묵묵한 자는 다시 묵묵할 필요가 없지만 밤을 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요13:8-10)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회개제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레 5:15)

구약의 레위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미는 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교훈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한국부흥사회의원여성대표회장)

사단법인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남·여) 목사안수, 교단가입

총 장 차광표 박사 전, 총신대 총장	대학원장 최종진 박사 남서울총신대학교	이사장 배광주 박사 국립중앙도서관	학 장 정인철 박사 총회신학연구원
-----------------------------------	-----------------------------------	---------------------------------	---------------------------------

특강 및 교수진

차광표 교수	최종진 교수	최재현 교수	최아식 교수	황기철 교수	정인철 교수	정인철 교수
--------	--------	--------	--------	--------	--------	--------

-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총회(개혁총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총)에 가입된 교단입니다.
- 본 사단법인 총회신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공인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인가 천주교회는 본 사단법인 총회신학연구원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강제로도 협동하여서는 사명자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 시간적 낭비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인터넷 통신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미국 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학대학과 자매교단 학·박사·영예박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총회신학, 신·편입생 수시모집

- 전도사 사제 강도사 전회 목사안수, 대 신학교 졸업자 상당 후 목사안수
- 총신대 신·편입생, 수시입학, 전회 장학제도(학기당 10만원)
- 인터넷 통신으로 수업가능함, 1년 4학기 병학없이 조기졸업
- 장로 및 사모임으로 3학년으로 편입학, 일반대학 졸업자는 4학년으로 편입학
- 수업일: 매주 (월,목) 오후 1시 ~5시까지 / 지역캠퍼스: 서울, 부산, 대전, 전주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39-6 (3층) / 지차회 5호선 3면승구 앞
■ 전화: 010-3224-2345 / FAX 02-2069-0105
사단법인 총회신학연구원 www.7777.or.kr E-mail: jmc9090@yahoo.co.kr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부흥사회 주최 김천호웹산기도원
총회부흥사회 축복성회

대 회 장 정기남 목사 예장웨신총회 부흥회장	대 회 장 장창윤 목사 원전신학교
---	-------------------------------------

네가 부름받은 때에는 내가 여기있다 하리라(사58:9)

날 짜 : 5월 4일(월) 저녁부터 ~ 7월 1일(목) 저녁까지
시 간 : 오후 2시, 저녁 7시 30분(1일 2회)
장 소 : 김천 호웹산기도원 (경북김천시 봉산면 상금2리 275번지)
문 의 : 054)439-1830 010-5511-2978(원장왕보혜)

총장시단장 조 광 표 목사 목포대교회	상임의 장 강사 심재오 목사 발리대교회	실무총무 강사 정창민 목사 원주대교회	강사단장 강사 김재인 목사 안양대교회	찬양선교사 강사 황창식 목사 안양대교회	사무총장 강사 김태근 목사 서울대교회
---------------------------------------	--	---------------------------------------	---------------------------------------	--	---------------------------------------

주 최 : 웨신총회부흥사협의회(http://www.0675.pe.kr)
주 관 : 웹산기도원 / 후원 : 지저스타임즈(www.JTNTV.KR 인터넷방송)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안교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절제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갑니다.

담임목사 장 승 현

은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 011-9027-9712

사선을 넘어서 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10화] 만주별판 가로질러 온 탈북자 옥중서 온갖 인권유린에 신음



내물골 열연(二連)의 감독. 한국으로 가는 시작점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은 죽음의 늪에 빠져 몸부림치고 있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동족의 슬픔이었다. 연이어 들어오는 그들의 입에서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쏟아졌다.

모두가 이런저런 사연을 한 아픈척 안고 잠혀 들어왔다. 시간과 방법은 달랐지만 북두칠성만 보고 가면 몽골 한국영 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희망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해 드넓은 만주별판을 헤매다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감독에서는 갖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높다란 담벼락을 넘어 도주하려다

다리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불들려온 여인은 발가벗겨진 채 한 겨울밤을 지새야 했다. 감방에서 소란을 피운 다른 여인은 쇠창살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스스로 죽기 위해 자기 이빨로 손목 동맥을 물어뜯었다.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절규를 듣고 계십니까? 저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표나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 나뭇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 깊이 잠들고 난 뒤 혼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

했다.

2002년 1월1일,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감방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면서 돌개바람이 일어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앞을 막았다. 회오리로 모래 기둥이 되고 기둥 뒤편 위쪽에는 대낮인데도 회영정 둥근담이 떴다. 그담 속에 사람의 얼굴 같은 게 보였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팔 벌려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지요. 저 감방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저들 모두 복속되면 죽을 운명들이옵니다.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때 컷전으로 '회의~'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묵직한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주후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소리쳐 하나님을 불렀다. 누가 보든 팔든 마음껏 울분을 토했다. 거의 40일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니 모두들 왜 울었냐고 난리를 피웠다.

"자기 웃듯 찾아 입어! 오늘 다른 곳

으로 이동한다!"

아침까지도 아무 말이 없더니 난데없이 옮겨간단다. 자기 옷과 신발을 찾느라 야단이였다. 그런 가운데서 나와 동생들은 은밀하게 감춰놓은 돈을 급하게 샀다. 서로 몸을 따라주며 삼키는데, 워낙 다급했던지 돈 봉지가 골짜골짜기 잘도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 종일 고물 버스에 실려갔다. 목이 타는데도 물 한방 주지 않았다. 물을 마시면 오줌이 마렵다는 이유에서다. 중간에 한번 사막 가운데 차를 세우고 삼엄한 감시 속에 불임을 보게 했다. 엄동설한에 사막에서 도망가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 탈출자가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인니, 어떡해. 아가 돈을 다 삼키지 못해 급한 감에 음부에 두개 넣었는데 소변 보다 떨어졌어요. 군인들이 보고 있어서 잡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어떻게 해요."

감시하는 군인이 조는 듯하자 예민이가 아까워 죽겠다는 듯이 귓속말을 했다. 눈을 깊이 감았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다. 우리는 '솔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시 121:4) 하나님임을 굳게 믿어야 했다.

20일 장애인 35쌍 합동결혼식

장애인의 날 맞아 백년가약을 맺은 35쌍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국제 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최광열(장로)과 한국교회회랑연대(상임대표회장 최이우 목사)가 공동으로 장애인 35쌍을 선정 백년가약을 맺는 합동결혼식을 지난 4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되어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가족 및 친지와 하객들, 자원봉사자들로 행사장은 만원을 이루었다.

이날 합동결혼식을 올린 35쌍의 신혼부부는 (사)국제 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광열 장로)의 전국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되었다. 이들은 황혼에서부터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층이 다양하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과 경제형편이 어려워 오랫동안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동거해온 부부들이다.

이날 최이우 목사가 주례를, (한희년

희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식을 마친 35쌍의 신혼부부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은 제주도로 2박3일간 신혼여행을 떠나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상임대표)한택수 목사는 축사를 맡았다. 또 최광열 장로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그들을 축복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합동결혼식을 올린 35쌍의 부부들의 일곱에는 할박웃음이 가득했으며 이처럼 축복된 자리를 마련해준 협회와 한

강신숙 목사 장애인돕기 사랑의 음악회



문화예술 신학원 원장이며 기연목선협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참사랑의집(대표 김성수 목사)에서 장애인돕기 사랑의 음악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독

고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12시간 동안 9명의 설교자, 많은 복음가수들과 울동, 국악, 의료선교팀 등이 특별 출연했으며, 정성을 다해 마련한 식사와 다과로서 독고 노인들과 장애우들이 기쁨을 갖는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둔감해져 있는 우리다.

보낸 사람은 꽃이나 화환에 써 붙인 이름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또 받은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들로 부터 이만큼 많은 꽃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문상객들은 어떠한 사람도 꽃을 보냈다는 가로의 신분은 확인하려 든다. 애경과는 거리가 먼 이 삼위일체가 화환문화와 마냥 계속시킨 것이다. 이름을 적어 때는 리본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금테까지 두르는가 하면 금박이 글씨로 쓰고, 심지어는 수까지 놓는 사치화가 이 화환문화의 저변에

실려 있다.

그 밖에 꽃을 주는 습속이 있었다면 세속을 등지고 살다 간 군자(君子)의 상여가 나갈 때 그 뜻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봄이면 매화꽃을, 가을이면 국화꽃을 꺾어다 그 상여에 꽂은 것이 고작일 것이다. 요즘은 애경사에 화환이며 꽃바구니며 2단, 3단으로 꾸민 화환(花棚)이며 한 길이 넘는 화초를 보내는 것은 전통적으로 뿌리가 없는 문화의 돌연변이인 것이다.

애경의 뜻은 한 송이 꽃이건 백송이 꽃이건 다를 것이 없을 텐데, 크고 많은 꽃일수록 보다 많이 애도하고 보다 많이 축하한다는 발상도 한국적이라니와 그렇게 보내고 받는 꽃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애경의 뜻이 증발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담임목사
장 창 수 목사

부목사	전 정 우
인수집사	윤 김 이 조 차 경 정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예배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중앙교회

표어 :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

주일 낮: 오전 11시 /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저녁 7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9시 30분 / 학생회: (토) 저녁 7시



담임 장영기 목사

서울시구로구구로5동531-4번지
☎(02)838-2208 팩스(02)838-2207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척교회





담임 정 재 규 목사

(우 163-837)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웨신총회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

復興師와 讚揚

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연속으로 부를 때 주의 할 것 (같은 키와 같은 리듬을 선정할 것) * 반 주자 보다 먼저 부를 때 조심하라 (음 높이를 생각하고 부를 것).

6) 呼吸法을 익히라.
* 복식 호흡(複式呼吸)의 필수 법칙은 급흡완호(急吸緩呼)이다. * 급흡완호 - 숨을 들이 마실 때는 짧은 시간에 급히 아주 많이 마시고 숨을 내 쉴 때는 천천히 조금씩 아껴서 고르게 내는 것. * 노래를 부를 때는 반드시 숨을 들이마신 후에 숨을 내 쉬면서 위에서 아래로 음이 내려오게 호흡해야 가사를 실어서 부른다.

7) 아름다운 소리 만들기를 訓練하라(특히 예배찬송).
* 공명(음 띄우기) * Sine(두음을 한음 같이) * Legato(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 하라) * IANBUS(약강박)을 배우라.- 끝 음을 부드럽게 처리하라. * 흔히 잘못 부르는 곡(빠른 곡과 느린 곡 & 리듬의 분별) 337장(인애하신 구세주여), 213장(막보다도 더 겸손), 179장(이 기본 소식을), 173장(불길 같은 성신여)

3. 聽衆을 掌握하라(청중음악에 대해서).

1) 對人恐怖症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한다.
2)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라. 청중 속을 파고들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선 마이크가 좋다.
3) 유리한 자리에 서라. 영적전쟁

이기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4) Humor를 使用하라. 막힌 답을 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머가 반드시 필요하다.
5) 가끔 바람을 잡아라. 흩어진 주위를 집중시키고자 가끔 엉뚱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4. 自身만의 Trade/mark를 만들어라 (트레이드마크에 대해서).

1) 오직 自身만의 것을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기 흉내를 내게 하라.
2)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로 模倣하지 말라. 창조를 위한 모방은 좋은 것이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모창이나 흉내를 내는 것은 좋은 것이다.

3) Over? Action을 취하라. 확대 과장 & 축소 과장 - 큰 동작은 아주 크게 하고 작은 동작은 아주 작게 하는 것이 좋다
4) 땀 뻘뻘 사용 할 때 청중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하고 목소리와 표정에 대해서도 오버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

5.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된 역할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그리고 교회와 부흥을 위하는데, 또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포토샵 강의

어도비 포토샵의 기본편-레이어

1. 포토샵의 화면구성과 이미지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2. 포토샵의 도구함인 '툴박스' - 보정작업의 기초 '선택툴'
3. 포토샵의 도구함인 '툴박스' - 얼굴의 여드름과 잔주름 지우기의 달인 '힐링 브러시 툴'
4. 포토샵의 도구함인 '툴박스' - 포토샵에서 글자도 쓴다 '텍스트 툴'
5. 이것을 모르고서 포토샵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레이어'
6. 어떻게 촬영된 사진을 밝게 보정 - 'Curves'
7. 옷을 같이 입히자 - 'Hue/Saturation'
8.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려면 크기를 작게 하자 - 'Image Size'
9. 효과를 주면 사진이 바뀐다 - 'Blur'와 'Sharpen'
10.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기본 과정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지금의 포토샵을 있게 한 일등공신을 꼽으라면, 그 중 하나는 당연히 '레이어'가 될 것이다.

투명한 필름에 각각의 그림을 그려 놓고 겹쳐서 보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그림은 분명히 여러장의 그림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그림인 것이다.

이 레이어 중에 한두장을 삭제할 수도 있고, 한 장만 수정할 수도 있다. 필요에 의해 그 레이어만 삭제, 수정 등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 이미지를 불러온다.(Ctrl + O) 레

이어 팔레트에 'Background' 레이어가 자동 생성된다.

- 지난 시간에 배운 '텍스트 툴'을 사용하여 글자를 써 본다.

이미지와 다르게 'T'라는 아이콘과 함께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된다.

- 다른 이미지를 불러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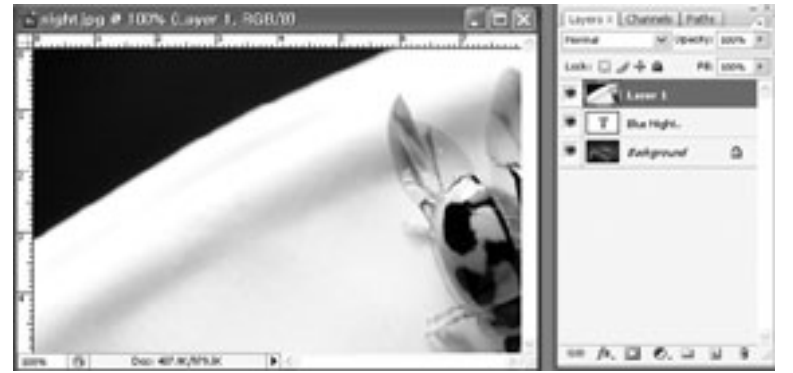
- 툴박스 상단에 있는 이동툴을 선택한다.

- 두 번째 불러온 이미지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첫 번째 이미지 위로 드래그 한다.

'Shift'키를 누른 이유는 두 번째 이미지 대화상자 한가운데로 이동하기 위해서이다.

'Layer 1'을 포함하여 모두 세 개의 레이어가 생성되었다.

아래 두 개의 레이어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의 이미지에 의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바로 아래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 아래로 옮겨 놓는다. 이제 텍스트가 보이게 된다.

- 'Layer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레트 상단에 'Opacity'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한다.

우측에 100%라고 쓰여 있다.

오른쪽에 있는 푸른색 화살표를 클릭하면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나온다.

왼쪽으로 움직여 보자. 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1%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져서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므로 꼭 익혀두길 바란다.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일곱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두 번째 아이콘은 지난시간에, 글자에 그림자를 만들때

사용했다. 여섯 번째 아이콘은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이다.

클릭하면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가 생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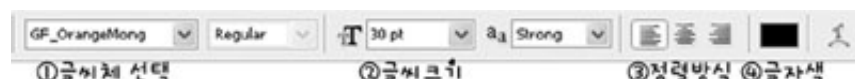
'Layer 1'을 드래그 해서 'Create a New Layer'아이콘으로 가져가면 'Layer 1'이 복제가 되어 똑같은 내용의 레이어가 생성된다.

- 제일 우측에 있는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콘은 'Delete Layer'이다. 필요 없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Delete Layer' 아이콘에 가져다 놓으면 삭제된다.

- 레이어 왼쪽에 있는 눈(eye)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본다. 레이어가 임시로 안보이게 된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처음 사용자에게는 무리가 있으므로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자.

어도비 포토샵의 기본편- 텍스트



이번에는 사진에 글자를 넣어 보고자 한다.

- 이미지를 불러 온다.(Ctrl + O)

- 툴박스에서 'T'를 클릭하고, 옵션바를 확인한다.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한다.

* 툴박스 하단에 보면 두 개의 사각형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경 색 (foreground color)과 배경 색 (background color)이다.

앞쪽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color picker' 대화상자가 뜨고 여기서 전경색을 선택해서 글자색을 결정하거나, 화면 우측에 있는 'swatches'라는 팔레트에 서 글자색을 선택한다.

- 이미지 위에서 글자를 쓰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클릭한 후 글자를 쓴다.

- 글자를 마우스 포인터로 드래그 해서 블록지정 후, 전경

색을 다른색으로 바꾸면, 글자색도 바뀐다.

한글자씩 블록지정한 후 각각 색을 바꾸어 보자.

*커서가 깜박거리고 있으면 포토샵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툴박스에서 다른 툴을 임시로 선택해서 텍스트 사용 환경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 글자를 쓴 후 가장 많이 효과를 주는 것 중 하나가 그림자이다.

- 우측에 있는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보면 'fx'라는 아이콘이 있다. 클릭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 'Drop Shadow'를 선택한다.

간단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조절해서 'ok'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 설교집 : 교정 교열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전문 교정 인력과 신학전문 감수위원이 있어 주일 설교원고만 주시면 설교집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 교회신문 : 해당교회에 맞는 기획과 원고아이템을 제공
•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과 이미지를 다량확보
• 교회홍보와 소식지, 성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아이템 교회신문 지금 시작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곳! 나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나래이미지

Tel. 031)501-6713
Fax. 031)501-6773
H·P : 010-2872-0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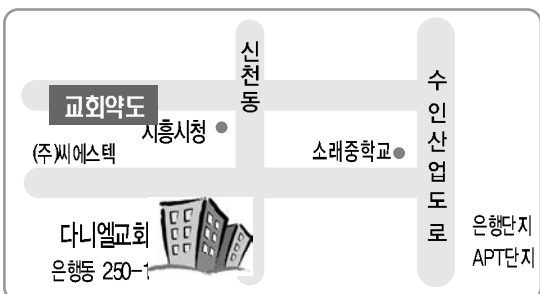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용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담임 고성규 목사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임마누엘 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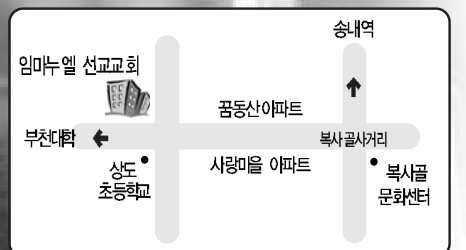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금요일예배: 오후 9시

월·화·목·금·토·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하나비전교회 새성전 봉헌예배

3천5백여명 성전봉헌예배 및 기념 ‘메시아연주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4월 25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하나비전교회(구 연수제일교회, 김종복 목사)가 새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예배 및 새성전봉헌기념 ‘메시아연주회’가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1부 새성전봉헌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 기갑 중부연회 전명구 감독은 ‘성전 건축의 복’이란 제하의 말씀에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소명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며 “하나비전교회가 건축되기까지 담임 김종복 목사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 과정에서 여러분의 흘린 피와 눈물, 땀이 있었기에 교회가 봉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명구 감독은 “그 동안 장애우와 함께하는 하나비전교회의 사역에 많은 감동을 받아 왔다”며 “앞으로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크게 쓰임 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을 다한 5명의 건축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건강한 영성과 기도로 성전 건축을 이룬 김종복 목사와 사모를 위해

교인들을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장애우 사역의 더 큰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유럽 등 선진국의 장애인 시설을 둘러보는 일에 전 교인이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2부 봉헌식에서 건축보고, 봉헌위임, 축사 등으로 이어지고, 전양철 감독(전 동교회는)은 “하나님께 투자하여 복 받은 신앙으로 발전하자”고 당부하며, 최문자 총장(협성대학교)은 “담장 교회에서 큰 성전으로 부흥, 발전한 하나비전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리더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 김진호 감독(도봉교회)은 특별히 김종복 목사의 사모를 중학생 때부터 신앙지도하고 24년 전 당시 연수제일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았던 기억들을 추억하며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봉헌현금시간에는 비전센터 장애우 청년들이 톤치임 연주를 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26일 주일 오후에 새성전 봉헌을 축하하며 열린 메시아연주회에는 초청 인사들과 새터민, 지역 주민, 전교인들이 1천5백석 규모의 대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18명의 하나비전교회 메시아 연주단(단장 김대섭 권사, 지휘자 기진서 집사)과 인천 중구 심포니오케스트라(소프라노 문혜원, 알토 최수정, 테너 최상호, 베이스 유승공) 등은 웅장한 ‘메시아’를 2시간 동안 연주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연주회에 참석한 한 교인은 “시대를 뛰어넘어 음악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진정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종복 목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시아 연주단과 모든 교우들, 특별히 장애우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욱 지역 주민과 장애우와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비전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회학교성장연구소 2009년도 여름캠프 일정 발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함께 살아 주신다. 성령시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붉은 줄인 성령님께서와 계셔서 함께 살아 주시는 성령시대를 어린이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막연하게 그리고 혹자는 너무 신비한 쪽으로만 생각한다. 성령하 나남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리고 실재없이

“붉은 줄”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은혜 캠프 7회, 블레싱캠프 2회 구원과 성장에 목표를 둔 교회학교성장연구소 캠프 일정 발표

올해로 14년째 교회학교 부흥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름일정을 발표합니다. 1996년 12월에 개소된 교회학교성장연구소(소장, 박연훈목사)는 지난 해 생활편으로 “I am confidence!”란 자신있어!를 이어 2009년도 주제는 “붉은 줄”(THE SCARLET CORD), 수218, 21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체험적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해 보다 1시간 더 많은 교사반을

구성에 캠프 후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주제 : 붉은 줄 (THE SCARLET CORD) 수218, 21

지금 우리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다. 많은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망하고 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학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그나마 출석하는 어린이들조차 구원의 확신, 은혜 체험이 없어 그냥 두어도 언제 교회를 끊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살고 있다. 이 어둠의 그늘에서 구원의 빛은 과연 무엇일까?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위대한 사실을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번 여름에 나누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 무능력한 교회생활, 믿지 않는 아이와 별 차이없는 학교 다니듯 교회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여름,....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루에 삼천백석 전도할 수 있는 베드로같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을 제2의 베드로로 만들어 보자, 은혜 받아야 평생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 합려푸아.

전화 문의 02-826-5291, 010-8678-0061

예장(복음선교)중부노회 제17회 정기노회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복음선교총회 중부노회(노회장 박순중 목사)는 제17차 춘계정기노회를 지난 4월 28일(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에일신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경자 목사 기도와 박인숙 목사 성경봉독에 이어 노회장 박순중 목사가 “함께 할 자”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으며, 심요셉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부노회장 박순근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됐다. 또 노회장

박순중 목사 사회로 오후 2시부터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노회장 박순중 목사가 유임되고 서기 서정일 목사, 부서기 장은혜 목사, 부회계 박인숙 목사, 회복서기 박동석 목사를 새 임원으로 보선하고 그 외에는 그대로 유임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1년 동안 노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자동 중퇴원이 된다고 결의했다.

예장(웨신) 중부노회 제174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중부노회 제174회 춘계정기노회를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대석교회(영재규 목사)에서 개최되어 부노회장 박용학 목사 사회로 강대일 목사가 기도를, 회계 김강민 목사 기도와 증경 이광일 목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하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서기 원명섭 목사의 광고가 있었으며, 증경 총회장 정재규 목사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또한 증경노회장 이계영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하고 임정일 목사의 기도와 김옥현 목사, 김두희 목사 등이 분병 분찬 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오후 2시 노회장 고영전 목사 사회와 김옥현 목사의 기도로 제174회 중부노회 춘계정기노회가 시작되고 회무처리에 들어가 각부보고와 안건토의를 가졌다.

광고문의
www.JTNTV.kr
지저스타임즈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홍보효과가 뛰어납니다.
(배너광고, 팝업광고, 일반지면광고)

광고문의
광고국 : 02)407-6574
FAX : 02)763-0221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The Jesus Times
www.JTNTV.kr

세계최초 칼라복사기 200만원대 출시기념! 100대 한정 판매 실시 ₩2,990,000

(A3, 20매) ※ 밀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36개월 할부(중고복사기보상))

컬러디지털(주보)복합기



COLOR 203/200

- 분당 컬러, 흑백 20매 고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세계최초, 최대 1m20cm 출력



COLOR 252/352

- 분당 컬러, 흑백 25/35매 고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특별할인가 ₩1,199,000 → ₩790,000



매직칼라 2490MF

- 살아있는 생생한 컬러 색감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기능

전자종 디지털 주보인쇄기



DP-3217P

- 분당 50-180매의 초고속 인쇄
- 반 영구적인 뛰어난 내구성
- 고효율, 저비용(1장 1원에 도전)
- 고해상도 사진/문자 인쇄
- PC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접지기 · 중철기



중철제본 & 접지기

- B5-A3까지 중철제본 · 접지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 2, 3, 4대 주보 한번에 접지 접하는 간격 조절 기능 분당 120매 접지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5779-0691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종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1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로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호세동 51-3(100주년기념관 옆)
Tel 02)762-8572 Fax 02)764-5893

전국 어디서나
1588-0691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47-9 영광빌딩
Tel 02)2065-1004 Fax 02)2065-1005

행복한 가정의 조건



예장웨신 총회장,
남서울중앙교회 장영기 목사

상그려움과 푸르름이 짙어지는 계절, 역시 5월은 여왕인가 보다. 오월! 축제가 많은 달이며 특별히 가정의 생각을 하게 하는 달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쫓 같이 다닌 시절 옛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 투박한 사투리가 묻어나는 어투. 다정하던 옛 친구의 목소리다. 웬 전화일까? 무슨 소식의 희소식이라는 시절 문화 속에서 자라는 나로서는 한편으로는 껍 반가운 소리며 또 한편으로는 혹시 불길한 소식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다행히 희소식이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막내딸 결혼식이 오는 일

요일 오후 2시란다. 목사로서 장거리 시골에서 있는 친구의 막내딸 결혼식에 갈수 없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감돈다. 토요일이면 다녀올 텐데 목사로서 일요일은 주님의 날 강단을 지켜야하니 이해 하겠지 친구는 물론 불신자지만 친척 중에 목사가 있어서 이해를 한다니 감사할 뿐이다. 잊을 새라 아침에 우체국 메일을 통하여 축하문자와 축하금을 송금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된다. 딸의 신랑 되는 사람 교회 나가나? 목사의 최고 관심사다. 교회 나가곤 하는데 믿음이 좁약하냐. 미국인들은 나름대로 배우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알파벳순서대로 조건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A-Ability(능력) B-Beauty(아름다움) C-Character(성격) D-Degree(학위) E-Economics(경제수준) F-Fortune(재산) G-Glamour(매력) 등이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내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중 몇 가지는 탈라질 수도 있다. B-Believer(신앙인), C-Christian(그리스도인) D-Devoted(헌신성) F-Faith/Faithfulness(신앙/신실함) 이렇듯 배우자에 대한 조건은 일 잘하는 사람

을 뽑는 회사의 조건과는 다르다.

일도 잘해야 하지만 인격과 신앙이 더 중요하다.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고 살아야하는 것이므로 조건, 수준, 사항 등 더 많은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과연 한 딸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 누구나 다들 까마는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 신부 감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요즘 그 남자 친구는 어떤가?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믿음이 좀 약해요 하지만 요새 그렇게 모든 조건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은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사람이요 그런 사람 찾기도 힘들어요 믿음이 차차 나아지겠지요 하나뿐이 그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위의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져도 보배로운 믿음이 없다면 딸같은 마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 보배로운 믿음이 이것이야 말로 결혼조건 순위 중에서 가장 일 순위가 됨을 그리스도인들의 미혼 남녀들은 재삼 주지하자 가정의 핵은 아내와 남편이다. 그중에 가장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보배로운 믿음의 첫번째 조건이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⑥ 상담과코칭

우등생 딸의 심각한 고민



백석문화대학 조영길 교수
(본지 논설위원)

1980년대 초의 일이다. 여고 3학년 생이 어머니와 함께 진학상담을 하러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와 딸 둘이 사는 학생인데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우등생이었다. 상담할 문제는 본인 자신은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우주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여 찾아 온 것이다. 어머니의 입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도 학비 면제를 받아 겨우 졸업을 시키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이 없으면 공부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걱

정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우주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외국유학까지 다녀와야 빛을 볼 수 있는 학문이니만큼 쉽지 않은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약학과를 지원하라고 했다. 그리고 또 대학 특별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병원 약국 책임자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 없는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당시 그 여학생에게는 어머니와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으로 지도했던 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90년대부터 코칭(coaching)이라는 말이 상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상담은 어려운 상태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코칭은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입장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나아지고 사고와 판단이 건전하지 못하여 병든 상태가 아닌지 염려되는 바가 크다. 누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너무 귀하게 키웠기 때문이다. 고생을 하며 면제를 받아 겨우 졸업을 시키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이 없으면 공부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걱

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학이든 정신적으로 나아져서 미래의 꿈을 키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코칭을 통하여 한 단계 도약시키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문제해결에 두지 말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자.

둘째, 문제해결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욕을 가지도록 이끌어 가자.

셋째, 안내하는 전문가에게 의존케 하지 말고, 치유경험자에게 상담을 하게 하자.

넷째, 원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상담을 하자.

다섯째, 탁월성보다는 차이성을 격려하자.

상담은 전문가가 앞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라면, 코칭은 뒤에서 밀어 주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 소중환 원석(原石)인 청소년들이 개성과 창의성을 잃지 않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도록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7:36-50)에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 사건은,

(1)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손님접대의 예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씻으며 향유를 붓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점과

(2)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메시아로는 물론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았으나,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헌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인의 믿음의 성숙을 비교하면서 가치기준이 무엇임을 일깨우는 상담을 하셨다. 즉 빛을 진자가 탐감 받을 때 많이 탐감 받은 자가 더 기뻐한다는 것을 일깨우고(41-43절), 시몬과 여인의 가치 판단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여인보다 못한 사랑과 믿음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은 넓은 의미에서 코칭이다.



박영남 목사(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원 교수, 시인, 문학 평론가)

그때, 그 그리움
그때 나는 한 마리 들짐승이었다
바버람 찬사리 맞고 자라난 들꿀처럼
아생에 길들여진 한 마리 시승,
그래도 나는 그때 행복했다
들을 지쳐 헤매다가 저물어
집에 들어와도 어서오너라 왜 늦었니
반겨줄 어머니가 있었고
방안에는 일찍 일찍 다녀라' 훈계할
아버지가 계셨다.
그때 나는 행복했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아버지가 되어
내 자식들을 돌보고 가르침 힘 없을까

‘빈 집’

자식들은 떠난 집보다, 히로뽕처럼
뽕 가는 것들을 찾아
뒷골목 길거리를 찾아 헤매고
가기에는 밤보다도 암야 아배,
집보다도 에덴동산 빨간 사과처럼
더욱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것들 뿐
그래서 모두 바깥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우리 집은 언제나 빈집
누고 병든 개처럼 골방에 갇혀 있는
부모는 내 뺨개치고
멀리 휴가 떠난 자식들
골방에서 쓸쓸히 흐느끼다 죽어가는
아버지
오늘, 여기 빈 집엔, 살아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빈집일 뿐
그때, 아무 가진 것 없이 가난했어도
나는 행복했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할 때 마다 즐거움 보다는 우울한 생각이 든다. 오늘

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말에 ‘우리 집’ 하면 우선 당장 세 가지 개념이 머리에 떠오른다. 첫 번째는 ‘주거 공간(house)’으로서의 ‘집’이다. 이 집은 파를 나는 온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안락처로서의 공간개념이다. 두 번째의 의미의 ‘집’은 사랑과 행복과 꿈이 있는 보금자리, ‘가정(home)’의 의미로서의 집이다. 세 번째의 ‘집’은 부모 형제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공동체 family’로서의 ‘집’이다. 우리는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생활은 수습, 수백 배로 부요해지고 편리해 지기는 했으나, 반대로 가정의 붕괴와 가족의 해체로 사랑과 행복을 잃었다.

유대인들이 2천년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 방랑자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심지어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민족적 참극을 겪으면서도, 그 민족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해체되어 사라지지 않고, 지행해 온 것은 철저히 가족과 가정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느 나라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열을 잃지 않았고, 가정에서 아버지는 곧 제사장이고, 자녀들의 본이 되는 스승이며, 펜토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목숨처럼 지켜왔다. 유대인의 가정은 작은 나라이면서, 부족이며 민족이요, 전국의 모형이라고 믿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중개자인 제사장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이면서 작은 나라의 왕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 passway of Gods blessing’.

몇 년 전, 독일 뮌헨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 작품 ‘빈 집’이 생각한다.
-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시는 평평

비고 아파트, 단독주택 할 것 없이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모두 빈집 천지다. 집집마다 때문에 광고 전단지지를 붙이고 다니는 청년 남자는, 오늘 불인 집에 머물기 지나도 전단지가 그대로 붙어있는 집은 주인이 부재중임을 알고 철사 도막하나로 모든 집을 다 따고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온다. 들어가는 집집마다 욕실에는 빨래감이 산처럼 쌓여 귀퉁한 냄새가 진동하고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거실, 안방은 청소도 안 되어 쓰레기장 같다. 청년은 들어가 목욕을 한 후 밀린 빨래를 하여 베란다 햇빛에 널고 집안 청소, 설거지를 해 주고 밥을 지어먹는다. 벽에 고장 난 시계를 고치고, 고장 난 전자제품, 집기비품을 수리하여 원상회복 시켜준다. 하루는 빈집을 알고 들어가 빨래 설거지를 마치고, 저녁밥을 차려먹고 방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스스한 여자에게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 passway of Gods blessing’.

다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갔다 가 병들고 늙은 아버지 혼자 골방에 두고 휴가 떠난 집에서 노인 혼자 피를 쏟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들어가 수의를 사다 입히고 장례를 치러준다. 삼인방 시체유기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오히려 선행으로 인정받고 풀려 나온다. 남편의 학대와 구타, 노예처럼 살아온 여자는 모처럼의 자유와 참된 삶의 의미,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지만 남편의 고발로 청년은 감옥에 가고 여자는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옛날의 우물증과 새장속의 새처럼, 어항속의 물고기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 후 청년은 감옥에서 나왔으나 다시는 어디에서도 그는 안 보인다. 그러나 그가 다녀갔던 빈집에는 그의 생명의 온기와 산자의 음성,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빈 창고 house’가 꿈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가정 home’으로 ‘관계 relation’가 회복된 ‘가족 family’

으로 되돌아간다.-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고 같은 아파트 ‘집 house’만 있고 ‘가정 home’도 ‘가족 family’도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이 빈집엔 고장 나고 녹슬고 목숨 쓰레기만 산처럼 쌓인 무생명의 공간일 뿐, 병든 부모는 짐짝처럼 버려져 쓸쓸히 죽어 가고, 자식들은 세상으로 놀러나가 버린, 사랑도 꿈도 생명이 없는 빈 무덤 같은 우리들의 집...

누가 나서서 이 빈 집에 사랑의 온기와 죽어 고장 난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소박한 가슴속에 꿈의 새싹을 움돋게 할 것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예배안내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홍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 회도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 · 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선 목사

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대예배실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로...

매일 밤마다 8시 기도회

매주 목요일 낮 2시 특별찬양치유

▶ 특별찬양 : 김명희 ▶ 드림 : 손정철 ▶ 피아노 : 김윤미

신학생 · 목회자 · 사명자 **영성학교** 오픈 준비중

교회부설 토요공부방(초·중·고) 및 악기지도(무료-토요일)

피아노, 드럼, 플루트 문의: 010-6677-6886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재정상담 세미나!

강의 내용

- 소득지출로 보는 우리가정
- 위험관리(보험알고 가입하자)
- 세금절약매적금: 펀드 이해하기
- 돈에 시달리지 않는 가정을 위한 재무설계

강사 프로필

- 포도재무설계 상담위원
- 한림성심대학 재테크세미나
- 네이버재테크 상담위원
- 네이버전문가 칼럼니스트
- MBC 생방송화제집중 부채클리닉편 출연

강사 송미순 목사

지금 전화 한통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영광제일교회

신금교회, 창립 52주년 기념 감사예배

천막교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신금교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389-101 전병운 목사 담임)가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성대한 감사예배를 드림과 아울러 마을주민을 한 자리에 초청하여 뜻 깊은 잔치'를 열었다.

1957년 미국 남 장로교 선교사로부터 미군 천막을 구하여 '농원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현재는 지역에서 없어

서는 양원 교회로 우뚝 세워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모두가 떠나가는 농촌에서 100여명의 규모로 성장하길만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창립 52주년 감사예배는 대내외적으로 더 의미가 깊다 하겠다. 특히 지난 52년 동안 신금교회는 5명의 목회자(이성만 목사, 황인구 목사, 조성관 목사, 라영수 목사, 라인수 목사)와 3명의 전도사, 사모 등 많은 믿음의 많은 일꾼들과 신도들을

배출하였다.

이날 창립 52주년 감사예배를 맞이하여 신금교회를 담임하는 전병운 목사는 "내가 목회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52주년을 맞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하나님 사랑과 주민들의 관심 안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와 억눌린 자를 찾아가서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며 천한 벗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부 감사예배는 사회 황인구(동수원 교회)목사가 진행하였으며 말씀에 부안석 포교회를 담임하는 이성만 목사로 "말할 수 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지나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전 교인들이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축사에 본교 출신인 라영수 목사(대전명성교회)가 맡아서 하였으며 신금교회 아동부 위성팀의 몸 찬

양에 이어 이기성(신금교회 역대 목회자)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러 기쁨 환영이 있을 후 전병운 목사에 의해 새롭게 조직된 신우회가 제2회 총회를 가짐으로 앞으로 고함교회인 신금교회 부흥을 위한 자리가 이어졌다.(회장 이성만 목사. 부회장 황인구 목사. 총무 조성관 목사. 부총무 이수길 집사. 서기 황인옥 집사. 회계 이은란 집사)

매 행사 때마다 드러내지 않고 숨은 손길로 봉사하는 신금교회 여전도회는 풍성하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만찬 이후 곧 바로 한국예송총합학과 전통예송음악 졸업생들의 전통음악 공연이 이어졌다.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찬송가를 관소리로 부르며, 가야금 독주, 산조합주, 화려한 부채춤, 민요합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대전 라영수 목사

총회장과 임원의 권한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는 처리회나 의결기구가 아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이종일 목사님이 1996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기독교신문사를 통하여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교회법률>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당시에도 총회장, 임원회, 노회장 연석회의 가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종일 목사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위의 책 207-208쪽을 그대로 옮겨본다. 5월 4일 노회장 연석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과연 노회장 연석회의는 어떤 회의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글은 반총회적인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리포드뉴스 편집자 주).

총회장과 임원회는 총회가 맡겨준 안건 외에도 체결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 사건을 긴급하다는 이유로 체결할 수 있는가? 장로회 처리권은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와는달리 모든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정치 총론 5). 그러므로 처리권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과 같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처리회에 있다(정치 8장 1

조) 따라서 총회장이나 임원이라 할 지라도 개인으로는 일반회원과 동일하여 오직 총회의 결의에 구속될 뿐이다.

처리회란이 의결기구인바 분회에서 결의하여 맡겨주지 아니한 사건은 단 한 건이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임의로 결의하거나 체결할 수 없으며 만일 한다면 이는 장로회 헌법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뒤집는 위헌처사가 된다.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사건이 아무리 긴급할지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총회를 대리하여 결의하거나 체결할 수 없고 오직 접수하여 차기 총회가 회집되면 안건을 상정할 수있을 뿐이다.

흔히 노회장 연석회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제도권 내의 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니며 처리회는 더욱 아니다.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아무리 결의하여도 그것은 뜻을 같이 모은다는 정치적 효과 밖에 없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결의도 할 수 없

을 뿐 아니라협의 기구는 될지 몰라도 의결 기구는 아닌 결의했다 해도 그것을 병자하여 총회장이 마치 구속력이 있는 결의인양 전국교회에 결의사항을 고지하고 지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요 불법행위이다.

총회가 파하면 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단지 총회에서 맡겨준 안건이 있다면 다른 상비부 또는 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위임된 사항을 처리 집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맡기지도 않은 일까지 결의하거나 마치 상비부나 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인 것처럼 상비부나 위원회 임무까지 관여하거나 간섭한다면 이는 권리 남용과 월권이요, 위헌적 행위이다.

총회장은 감독이나 교황과 같은 통치권자(처리권자)가 아니고, 오직 총회 회의의 의장일 뿐이다. 정제 19장 1-4조는 회장 및 서기의 권한과 직무를 정한 것으로 총회장은 회의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의장의 권한 밖에 없다. 즉 장로회 총회장은 처리권



자가 아니라 철저히 총회 회의의 사회자일 뿐이요, 총회결의로 그에게 체결하라고 맡겨준(결의)사건이 있다면 그 안건에 국한하여 체결할 수 있을 뿐이다.

항간에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거창한 공약을 하는 분들이 있으나 총회장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사회를 잘 맡아 하면 된다. 총회장을 감독이나 교황처럼 통치자로 착각한다면 마치 대통령 공약처럼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거창한 구호와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로회 총회장이 진정 무엇임을 안다면 "법대로 사회를 잘하겠습니다"라는 말 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장로회 정치가 중앙집권 체제나 교권화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장로회가 아니다. 장로회 총회장은 회의의 의장일 뿐이다.

최종편집: © 리포드뉴스

칼빈의 설교자에 대한 인식(認識)과 설교(說教)에 대한 이해

A. 서 론

설교(說教)에 대한 인식(認識)은 그의 설교 사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설교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도 설교자로서의 자세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 대한 인식은 그의 설교 사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목회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목회자로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살펴보면 칼빈이 인식한 설교와 설교자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의 실제 설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종교 개혁 당시 교회의 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물임엔 틀림없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綱要)와 신구약 주석을 통해 신학자로서 주석가로서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통해 종교 개혁의 큰 일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보다는 신학자요 주석가요 평정가로서의 칼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使役)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의 설교사역이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보통 격주로, 주일에 두차례(신약과 시편에 관하여)그리고 주 중에는 매일 설교를 했다. 그 자신의 시대에 그가 고인이 된 이후 수 백년 동안, '기독교 강요'가 인기를 얻었던 것도 그의 설교 때문이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자주 그의 설교를 강단(講壇)에서 낭독하곤 했다. 이렇게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의 사역의 중심(中心)에 있었다.

우리는 '설교 없는 종교개혁(宗教改革)'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종교 개혁의 큰 일을 수종(隨從)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시대와 매우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과연 당시의 설교 행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고 반문(反問)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는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타락(墮落)이 그것이다.

다음에 계속

본지 운영위원 공주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노후차 두달내 처분 않으면 되레 10% 가산세

오는 5월부터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덜 내게 되지만 새 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제지원 요건(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이 없더라도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시행하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놴다. 이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노후차량을 먼저 처분하고 새 차를 사야 하나, 아니면 새 차를 산 뒤 노후차량을 처분해야 하나. "선(先) 노후차량 처분, 후(後) 새 차 구입의 경우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뒤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신규 등록해야 한다. 2개월 개월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새 차를 먼저 샀다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노후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2개월을 넘기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 뿐 아니라, 감면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추징된다."

노후차량 기준에 해당하는 차가 없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6월 말까지 30% 인하키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차량 세제지원 방안이 5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5-6월은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세제지원 중여 둘 것을 선택하나

한도액이 없다. 반면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은 감면 한도(최대 250만원)를 두고 있다. 소비자가 판단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차종에서 이익이 크다. 그러나 초고가 차량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750만원 수준의 고가 차량이라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감면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라, 감면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추징된다."

노후차량 기준에 해당하는 차가 없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6월 말까지 30% 인하키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차량 세제지원 방안이 5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5-6월은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세제지원 중여 둘 것을 선택하나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량별로 감면 한도액이 없다. 반면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은 감면 한도(최대 250만원)를 두고 있다. 소비자가 판단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차종에서 이익이 크다. 그러나 초고가 차량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750만원 수준의 고가 차량이라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감면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聖經)은 여전히 진리(眞理)며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죄인(罪人)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시나 오늘날이나 본질상 변화된 것은 없다. 우리가 칼빈의 설교를 살펴보는 것은 그 설교를 모방(模倣)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칼빈이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설교자로서 그는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아 오늘날 우리의 설교에 대한 자세에 도전을 삼고 성경적 칼빈주의적 설교로 돌아가고자 함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당시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熱情)과 그 말씀의 사역자로서 헌신했던 한 시대의 개혁자를 통해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자 함이다. 최근 칼빈의 설교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면서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이해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도 칼빈의 설교집이 속속 출판됨으로써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면모(面貌)를 다시 대할 수 있게 됨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계속

본지 운영위원 공주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충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 회 특 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 사 특 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주관: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지 저 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 배 내 보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벽기도 회	매일 새벽 5:30	본 당	성경강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 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 당	열린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 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 당	특별예배로 들을 수 있음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 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 당	참이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장소	매월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 간	장 소	대 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목관	취학전 아동
유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목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년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 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19~24세 미혼
청 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25세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 광 교 회
Presbyterian Ch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9-10
TEL. 031-384-6826



대광교회 담임 염영수 목사

서울예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장창윤 목사 경부협 대표회장 취임감사에배



경인부흥사협의회의이하-경부협장창윤 목사 대표회장 취임감사에배가 지난 4월 25일 오후 12시 서울 강서구 화곡4동 효신교회(담임 박정엽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날 수석상임회장 박정엽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감사단장 김장영 목사 기도와 실무국장 김대원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고, 효신교회 중창단이 특별찬양을 맡았다. 부총재 손대영 목사는 “영적 지도자”란 제하의 말

씀을 선포하고, 복음가수 김재규 집사가 헌금 특송을, 재정국장 김강열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2부에 사무총장 고병복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회원대표가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가 부총재 손대영 목사, 지도위원 정기남 목사(본지 발행인)에게 추대패를 각각 전달하고, 자문위원 류성열 목사, 이형진 목사, 수석상임회장 박정엽 목사,

실무국장 김대원 목사, 등 각각 감사패 전달식과 임원들과 실무진 각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예능국장 선명숙 몸찬양단의 축하워십과, 김재인 목사(예신총회 부흥사협의회 감사단장)가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의 약력 소개가 있었으며,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가 취임인사를 했다. 장 목사는 취임사에서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전개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

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우리의 푸른 가슴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우리의 뒤편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경부협 회원임을 자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과감하게 변혁을 주도하는 주역이 되어 Blue Color의 승리를 이루는 부흥사들이 되자고 주문했다.

또한 자문위원 이형진 목사, 한부협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등이 축사를, 지도위원 정기남 목사(본지 발행인)가 격려사를, 우리농산물살리기운동본부의 후원사업 실명을 가졌으며, 예능국장 선명숙 몸찬양과 사무처장 광영민 목사가 광고를, 이날 한국부흥사협의회 여성대표회장 이정은 목사(진주 초대교회)와 부교역자들과 함께 장 대표회장을 축하하고 자문위원 류성열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예신총회 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장창윤 목사)는 지난 4월20일부터 23일까지 목포 만나교회(조광표 목사 사무에서) 춘계총회대성회를 가져 성황리에 마쳤다.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리라”(렘 1:3)하는 주제를 삼아 집회 현장의 열기로 목포와 호남지역 부흥의 강한 열풍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목포지역 춘계총회성회 기간 동안 예신총회 부흥사협의회 제4기 연수교육을 가졌으며, 강사 :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 김재인 목사, 심재호 목사, 정바울 목사, 정창민 목사, 정영철 목사, 김태근 목사 등이다.

기감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 취임예배

도봉교회 제5대 김진호 감독 은퇴 및 6대 담임 이광호 목사 취임식



기 운동 회장 등을 맡아 활발히 사역을 하고 있다.

이광호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원 졸업, 감리신학교 학원 졸업, M.D.C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 취득, 안산원곡교회, 진해제일교회, 송정교회, 익산 영생교회를

담임했고, 이번 도봉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됐다.

43년간 목회를 한 김진호 감독은 은퇴 후 미자립교회를 살리기 위해 비전을 가지고 남은여생을 바칠 계획이며, 자비랑 부흥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무료 세미나, 큰 교회와 작은교회 자매결연 맺기 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00만 원을 내놓았고, 앞으로 “비전교회 함께하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작은교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홀 사모 가정을 위한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 위해 총복 음성근 금왕읍에 40,000평을 확보하고 고추장 공장을 설립 홀 사모 250여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며, 수양관과 주택을 지

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해나천연물산이 수익금의 100%를 공장 건립에 내 놓으므로 무리 없이 진행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김수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은퇴잔하예배는 김종훈 목사가 기도, 시몬성가대의 찬양, 서울연회 신문구 감독이 “전능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안정아 교수(숙명여대)가 특송을 했다.

이어 진행된 은퇴잔하식과 이광호 목사 취임식은 김진섭 감리사도봉지방의 집례로 김진호 감독의 영상소개, 신문구 감독이 선언, 김기택 감독, 정용치 목사, 이정숙 권사가 순서를 맡아 축하를 했고, 김진호 감독이 은퇴사를 했다.

이어서 신문구 감독이 취임목사를 소개하고 문답, 기도, 선언을 한 후 김진호 감독이 교회기를 인수 한 후 신경하 감독, 배동운 감독 등이 권면에 나섰으며, 이광호 목사가 취임사에 이어 나원용 감독 축도로 마쳤다.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은 결코 정신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3)

한국교회의 목회역사에서 1960-80년대 초반에는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교회 안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어쩌다 보면 교회 안에 갇힌 한 두 사람의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러는 이러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말하기 보다는 귀신들림(?)으로 보는 경향이 더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기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교회의 관심이 많이 떠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탐방하는 일은 어느 특정 이단집단에서나 하는 이상한 행위처럼 지부되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구역조직이나 기타 모임에서 조용하게 기도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려는 노력들을 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귀신들림이나 영적인 문제와 얽고 있는 사람보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공공연히 이제는 메스컴이나 TV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있는 기독교상담자들을 통

해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병들이 교회 안에 소개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성향이 있는 성도들을 병원으로 보내는 실정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목회자 위에 군림하는 정신과의사들이 전하는 심리화적인 피습림이 없는 복음(?)을 더 믿는다.

정신과 의사이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병이라는 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는 말을 한다. 실제로 감기가 일상에서 많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감기를 앓다가 회복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하듯이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앓다가 회복되는 병으로 본다. 특히 이것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마음에서 앓는 감기]라는 모호한 말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정확한 말을 믿어 낸 이 말을 귀담아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마음]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 보아

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The human heart is most deceitful and desperately wicked” (렘 17:9)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누가 능하 이를 알리오 마는?” “Who really knows how bad it is?”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계시지 않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렘 17:10-14)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 밖에 계시지 않다.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질병이라고 명명되어진 많은 병들은 실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의자들이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 모른다. 다만 의학적으로나 기타 외국의 의학서적에서 말하는 원인을 답습해서 공부해서 알 뿐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들은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이론들이 가설일 뿐이다. 검증되어진 정설과 가설의 구분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나고 묻는 질문에 1) 생물학, 유전적인 원인, 2) 사회, 환경적인 원인, 3) 심리, 정신적인 원인, 4) 문화, 개인적인 원인, 5)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이나 결핍 혹은 과다의 원인 등등 많은 이론들을 중심으로 한 가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르고 있는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어느 한 가지도 분명하게 검증된 것은 없고 다만 “이런 원인으로 일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자신 없음을 말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신병원이나 심리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라. 왜 우울증이냐 정신병 혹은 장애가 생겼는지를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들은 자신없는 자신들의 말을 할 것이다.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

료를 받으면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묘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흔하면 정신과 의사이거나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간은 누구나 정신병을 조금씩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함으로서 사람들에게 정신병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을 하는 의사가 본인도 정신병자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다. 정신병자에게 정신병을 말기는 결론 ... 과연 이러한 해프닝을 연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보내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부족해서 성도들의 삶을 다루지 못하는 것일까? 실제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일 것이다.

우울증은 질병이 아니다. 신체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람들에게 우울증의 증상을 줄 수 있으나 많은 우울증이라는 증상과 질병 (일시적 혹은 만성적)이 비성경적 습관이나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죄성의 반응의 결과 때문일 수가 있다. 비성경적 생활에서

오는 우울증은 죄를 성경적으로 다루고 분명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살면 분명히 극복될 수 있다. (창 4:3-7, 특히 7절; 시 32:1-5; 42:11; 55:22; 119:28, 50, 75-77, 143, 166; 요 15:10-11; 고후 1:3-6; 약 1:22-25에 근거). 이러한 비성경적인 사람들의 패턴이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죄책감이나 마음의 고통은 종종 세상이 말하는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것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분명히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창 4:3-14; 시 32:3-5, 38:1-10에 근거) (Ref. Self-Confrontation by BCF pp 319-321) 즉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고백하고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 32:3-4, 38:1-4; 골 3:25; 히 12:5-11)



글쓴이 김주원박사는 한국성경적상담자협회 대표로 사역하면서 미국국제성경적상담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 CO)의 한국멘토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ARM (Addicted to Recovery Ministries)의 한국대표로 섬기고 있다.

한국의 알코올 약물 등 각종 중독에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알코올중독전문사역교회 새울교회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있다.

(010) 2252-2934

6대 존속신앙으로 이름없이 빛도없이 섬기는 자세로 목양일념

전영춘 목사 2009년도 부흥성회



전 영 춘 목사

약력

- *1974년 성남시 삼대일 성일교회 설립(집사)
- *1984년 인제군 기린면 현4리 은혜제일교회 설립(장로)
- *1973년 신촌장광교회 계약신학 1년 수료
- *1985년 여장합동개척 총신 졸업
- *1992년 여장합동보수 총회신학 단기 졸업
- *1995년 춘천 강원한사랑교회 설립
- *2000년 춘천 강림교회 설립
- *인제군 교정협의회 회장 역임
- *인제군 삼남 기린면 교역자 연합회장 역임
- *춘천지역 총목회 초대회장 역임
- *서울 총로4가 인의동 국제복음성교회 총재 역임
- *여장보수합동총회신론 이사장 역임
- *총회신학교 총 동문회장 역임
- *총회신학교 부총협의회 회장 역임
- *독립문총회신학교 총본부장(현)
- *독립문총신 겸인 교수(현)
- *보수총회신학전임교수 역임
- *민주경찰 복음신문 사장(현)
- *지저스타임즈 신론 이사장(현)
- *예술선교신문 독자 성경의 문 해답
- *한국노숙자 선교연합회 본부장(현)

출간

- 신구약 사전적 출간 / 심진법 출간
- 들소리 출간 / 황금예회집 출간

1월 4일 주일(목) 예배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11일 주일(목) 예배 서울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15일 주일(목) 예배 서울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애국투사 복음화협회 대표회장 문수영 목사

19일 주일(목) 예배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26일-29일 파주 금촌 뱅엘기도원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2월 1일 주일(목) 서울 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8일 주일 오후 서울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9일 서울 여전도회관 대강당 월드미션선교연합회 강신숙 목사
9일-12일 목요일 방 성남시 기독교예술공동체 사랑의교회 담임 김성수 목사
15일 주일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22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서울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24일-26일 전남 해남 육천 거저마을공동체 선교원회 원장 장상연 목사

3월 1일 주일(목) 서울동심장교회 목 예배 설교 담임 전봉화 목사
2일 오후 2시 민족투사복음화성회 설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대표회장 문수영 목사
8일 주일 사대문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오후 예배설교 담임 정병훈 총장
15일 주일 춘천 주성원교회 주일 낮 설교 담임 김병철 목사
23-26일 파주 금촌뱅크기도원 집회인도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27일 오후 2시 민족투사복음화대성회 설교 대표회장 문수영 목사
29일 주일 춘천 주성원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 담임 김병철 목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대신대원 강의

4월 5일 서울 동심장교회 주일 낮 예배설교 담임 전봉화 목사
10일 서울종교공원 오후 집회인도 양현 목사 신교회
12일 주일오후 7시 춘천시 중앙시장 강북성결교회 1일부흥회 인도 담임 최예석 목사

19일 주일 오후 예배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목사
20일-12시 호사랑 노인잔치교회 설교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
29-30일 파주 금촌뱅크기도원 집회인도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30일 부천시 삼산체육관집회 1일설교 대표회장 유한나 목사

5월 3일 주일 낮 설교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10일 주일 오후 예배 서울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목사
19일 오후 1시 목포교도소 전 재소자 1300명 집회 담임 김정래 목사
25일-28일 파주 금촌뱅크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6월 22일-25일 파주 금촌뱅크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회 총신대신대원 강의
매월 격주 주일 오후 예배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매월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매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설교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7월 27일-30일 파주 금촌 뱅엘기도원 집회인도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격주 주일 오후예배 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매월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8월 24일-27일 파주 금촌 뱅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 신대원 강의
매월 격주 주일 오후 예배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매월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9월 21일-24일 파주 금촌뱅크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대 신대원 강의
6일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마지막 주일 낮 예배설교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10월 26일-29일 파주 금촌뱅크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 신대원 강의
매월 격주 주일 오후예배 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첫 주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11월 23일-26일 파주 금촌 뱅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대 신대원 강의
매주 첫 주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매월 격주 주일 오후예배 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12월 14일-17일 파주 금촌뱅크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활 목사 원장 장월화
첫 주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정병훈 목사
매월 격주 주일 오후예배 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36 초록지붕APT 102동 305호 TEL.(033)251-9424 H,P 010-5371-6265 E-mail: hoh-55@hanmail.net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 채근성 대표

“장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죽음이다. 자신이 살아가며 얻은 권력, 명예, 재력으로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사람은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동분서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온갖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갑작스레 찾아오는 가족과 지인의 죽음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에 잠기게 한다.

갑작스럽게 닥친 상(喪)으로 경황이 없는 상주들을 위해 전문적인 장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찾았다. 주님을 경배하고 많은 영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다.

믿음과 신뢰로 맞춤 장례서비스제공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는 갑자기 발생하는 장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기독교 장례문화 선도

미리 일정 금액을 월부금 형식으로 일정한 납부, 행사 발생 때 용품과 인력은 물론 행사진행 등 다양한 고품격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 채근성 대표는 “장례식은 우리의 분향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이며,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다. 장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전국 환송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조업이 크게 발전해

아니라 회원들에게 한 달에 두 번 문자 발송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채 대표는 “회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회사의 건실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며 “더욱더 안전한 장치를 위해 서는 전국공제조합이 필요하다.”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

채 대표의 기업이념에도 기독교 정신이 가득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장 3절)는 성경의 말씀을 기업이



부름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회사의 대표는 펀드, 부동산 등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어려움의 나락으로 몰고 갔다. 결국, 회사를 나온 채 대표는 직접 법인을 설립해 상조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무작정 뛰어들어 상조사업 초창기에는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사업에 한계를 느낀 채 대표는 그림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입했다. 그러면서 사업은 눈에 띄게 발전을 이루었고 채대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했다고 한다.

채근성 대표는 교인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개최와 개척교회 후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해 전국에 1500여 개의 전동휠체어를 기증했고 중국 선교여행을 하고 싶어도 선교비가 부족해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매년 회수익의 30%를 그 다음해에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채대표의 장기적인 목표는 기독교인을 위한 다양한 용도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채 대표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 반

드시 돌려 드리는 그의 성실한 삶은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졌고 또한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채 대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구제하는 것은 작은 믿음의 행동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더욱 드리고 싶어 평생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교회 개척과 선교사 파송의 비전으로 살려 한다.”라고 밝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크리스천들은 죽음의 순간을 단순히 노여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장례에 준비된 기업을 통해 고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신없는 장례 절차와 행사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고인에게 집중, 마음을 다해 보내줘야 한다.

채근성 대표는 상조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급히 치르고 마음 아파하는 자녀를 많이 봤다. 우리 회사를 통해 후회 없는 장례를 치르고 마워하는 분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라며 상조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드러냈다.



현재 국내 상조회원 가입 수는 1백만 명에 육박하며 전국 2백여 개의 상조 회사가 있다. 전국종합기독교상조회는 2007년 6월에 설립해 벌써 회원이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는 전국 각 시·도의 짜임새 있는 전국 조직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고객이 매월 낸 부금 중 50%를 예치하고, 부도 보증을 위해 상조이행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해상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채 대표는 양심에 기초한 가격으로 거품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 불편한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온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장례도우미를 과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진행하며 문상객 접대 등 많은 일손을 도와주고 있어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채 대표는 상조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학 면세점에서 소형 매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탄탄대토를 깔아왔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로 마지못해 한 일반 회사의 기독교 상조사업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감동이 시작되는 믿음의 기업"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께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

막상 닥치고 보면, 당황스럽고 절차와 금전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어느 누구에게 의논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 상조이행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해상배상책임보험 가입
- ◆ 24시간 전국 어느곳에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 ◆ 회원은 빈소, 접객실이용료, 음식, 장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 ◆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행사를 저희가 책임집니다.

20000원 X 120회면 걱정 끝!!!



대표이사 채근성

전국의 목사님들과 기독교성도 여러분의 성원으로 국민일보 선정 기독 "HIT"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주님안에서 성장하는 성실한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수도권 각 교회 멘토링 세미나 후원
- 2007년 전국교회 전도세미나 및 전도철처에 1,000대 무료증정
- 2008년 전국교회에 웃음치료 세미나 후원
- 2009년 전도간증왕 초청 무료 간증 후원

※ 강사료는 저희 회사에서 일체 부담해 드리니 교회에서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문의: 032)329-3755~8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

www.kdsangjo.co.kr 24시간 콜센터: 1577-4415

지저스타임즈 장례선교부 대표 정기남 목사 011-468-6574



내 설교의 원천은 '말씀묵상'입니다



▲큐티에서 설교까지 이어가는 자신 설교작성 과정을 소개 중인 이동원 목사

이 시대의 대표적 설교가 중의 1인인 지주교회 이동원 목사가 자신 설교의 원천은 '말씀묵상'이라고 밝혔다. 1일 은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진행된 '큐티에서 설교까지 세미나' 셋째 날 주제 강연에서

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묵상만으로 설교 준비 이 목사는 이날 '말씀묵상과 설교'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자신의 설교준비 과정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월요일 오전에는 본문을 정하고, 이후 수요일까지 본문을 여러 개의 번역본으로 여러 번 읽으며 묵상을 하고, 목요일에 설교의 제목과 아웃라인을 정한다"면서 "여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주석이나 참고서적의 도움없이 오직 본문 묵상만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본문을 정할 때, 이 목사는 전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묵상노트'의 도움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이 목사는 "말씀묵상은 설교 준비의 중요한 바탕을 제공하지만, 설교 준비가 말씀묵상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큐티가 설교준비 수단으로 기능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말씀묵상

을 통해 본문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통찰력)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기록한 묵상노트를 통해 설교와 관련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게 된다"면서 "이는 한 마디로 말씀묵상이 가져다 주는 보너스"라고 말했다. 설교 전, 설교 준비 두 단계의 묵상 거쳐 본문이 정해지면 이 목사는 설교문 작성 전에 두 단계의 묵상 과정을 갖는다. △설교 전 단계에서의 묵상과 △설교 준비 단계의 묵상이 그것들이다. 이 목사는 "설교 전 단계에서의 묵상"은 설교자 자신을 위한 묵상으로서 설교자가 본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며 "묵상이 끝나면 '묵상 노트'를 작성하는데, 이 때 묵상을 통해 인도함을 받은 설교 요점을 메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할 경우, 설교가 인본주의적 작업이 될 수 있다"면서 "설교가 케리그마, 즉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면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목사는 "설교 준비 단계의 묵상"은 설교 청중을 위한 묵상으로서 설교자가 청중을 대신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며 "이 과정을 거쳐 설교의 아웃라인과 제목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교 준비가 끝나면 '도우심 구하는 기도'로 최종 준비 이후 이 목사는 △설교본문 작성과 △도우심의 기도, 그리고 강단에서 △준비된 말씀의 선포 과정을 마친 후, 주일 밤의 휴식을 거쳐 월요일 아침부터 이전과 같은 일주일 단위의 설교준비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 목사는 "이렇게 목요일까지의 묵상을 통해 설교의 제목과 아웃라인이 잡히면, 비로소 주석서나 본문과 연관된 책들을 참고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해 토요일 오전까지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토요일 오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설교 준비 마무리 및 주일 맛을 준비를 하고,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주일 중 설교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주일 저녁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목사에게 있어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실감케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느끼는 사랑에 몇 민분의 일도 안 되겠지만,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 감사하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리라 확신한다.

-백은실의 '말씀 심는 엄마' 중에서-

우리는 자녀를 얻음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가며 참 부모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영적 부모 된 하나님 아버지와 육의 부모, 모두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자녀의 이름이 부모에게 두 배, 세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알지 못했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을 풍성케 합니다.

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6-30 필리핀선교집회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7월	3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5-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5 산성교회(김장남목사) 20-22 은현기도원(조은원장)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10월	12-13 정기노회 13-15 서북교회(배경락목사) 18-20 생명의교회(백규식목사)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2월	2-5 해방기도원(백재옥원장) 6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9-11 옥산성경결교회(박병정목사)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5월	4-7 에스라선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원장)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8-21 미쁜교회(이봉현목사) 25-27 선교지방문	8월	3-6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3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3~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11월	2-3 신원교회(맹조영목사)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16-18 선교지방문 23-25 경일교회(박조일목사)
3월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축복대심방	6월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7-10 새롭교회(김대수목사)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15-17 청주기도원(강성진원장)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9월	7-11 온누리복음화수양회(임기호) 14-16 열방교회(신보현목사) 21-24 교단총회 28-3 추석주간	12월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14-17 해방수양관(백재옥원장) 20-23 한마음교회(신규대목사)
4월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우리교회(이재경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서울시 노원구 상계
정현 3-2
☎ 02-2201-0672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예 복 교 회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02-3391-9676 / 010-5267-1434

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남부노회 제48회 춘계정기노회



오장택 목사 최종태 목사 모성은 목사 김용태 목사 등이
신임목사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안 수 위 원

- 김재완 목사, 신언창 목사
- 조광표 목사, 김성남 목사
- 김극석 목사, 김상호 목사
- 박천위 목사, 공규봉 목사

남부노회: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 전 화: 061-274-1808
노 회 장: 조광표 목사 010-2940-1617 서 기: 김상호 목사 010-5411-5028